

# 운주사에서 세상을 바라보다

조진호 10년만에 광주전...목판화 60점 등 80여점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확장 기념 내년 2월 28일까지

올 초는 내리는 운주사를 찾은 조진호 작가는 그 아름다움에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다. 화순이 고향이고, 10여년 전 마련한 작업실도 운주사에서 차로 10분 거리지만 최근엔 발걸음이 뜸했다. 어쩌면 너무 친숙해서 잠시 잊고 지냈을지도 모른다. 사찰 문화, 소설 '장길산'을 통해 연상되는 개혁의 상징이라는 생각이 늘 앞섰는데 '내 시선'으로 바라보니 새삼스레 조형적인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겼다.



“觀”

마침 연말에 광주에서 10년만의 개인전을 준비중이었던 그는 '나만의 시선'으로 바라본 운주사 풍경을 담담하게 먹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다. 자신의 '출발점'이었던 목판화를 통해서다. 그 때의 운주사 풍경은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에서 열리는 '관(觀)-세상을 바라보다'전에서 만날 수 있다. 로터스갤러리 확장기념 개관전에 초대받아 내년 2월 28일까지 열리는 전시다. 이번 초대전에서는 '전불전탑'을 주제로 한 운주사 목판화 60점과 수채화 등 평면 작품 17 점을 전시중이다.

1층 기존 전시장에는 흑과 백으로 드러나 빛과 그림자로 다가오는 단색 목판화 작품 60점을 걸었다. 8월부터 집중적으로 작업한 신작들이다. 운주사에서 돌아온 후 드로잉 작업부터 시작한 그는 그곳에서 만난 외물, 석상 등을 목판화로 찍어내기 시작했다.

이번 전시작은 강렬하고 힘있었던 예전 작품과 달리 목판화가 갖고 있는 투박함, 소박한 정서와 함께 좀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다가온다. 사시사철 풍경 속 석불의 모습, 연꽃과 함께 한 불상이 짓고 있는 온화한 미소를 바라보면 입가에 빙그레 웃음이 고이고 운주사에 한번쯤 다녀오고 싶은 생각이 든다. 작가는 "예전 작품이 칼 닳이 강했다면 이번 전시작들은 편안하게, 느낌이 가는 대로 작업했다"고 말했다. '동행 시리즈'는 불상과 함께 마을 어른들의 얼굴을 함께 새겨넣은 작품이다. 작가는 "나이가 들어가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왠지 불상과도 닮아 보인다"고 했다.

지하 공간에는 맨드라미, 해바라기 등을 소재로 작업한 수채화 등이 전시돼 있다. 직접 제작한 대나무편의 거칠거칠한 느낌을 살린 작품들로 정통 수채화 물감과 함께

아크릴 물감, 석채, 색종이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했다. 해바라기는 의도와 의도하지 않음이 적절히 어우러지면서 대체로 운조형미를 선사하며 10m 대작 '관'은 작가가 만난 사람, 불상, 꽃, 나무 등 온갖 삼라만상을 빼곡하게 채워 넣은 작품이다.

조 작가는 3년 7개월간 광주시립미술관을 지내고 지난 7월 다시, 작가로 돌아왔다. "평생 이렇게 열심히 작업한 적이 없었어(웃음). 새로운 조진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작가들은 늘 무슨 작업을 해야할지 고민합니다. 때론 불안함도 함께 있지요. 저 역시 관장을 그만두고 작업실로 돌아온 후 생각이 많았죠. 멀리 갈 것 없이 내 주변의 이야기를 담아보자 싶었고 이번 초대전이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조진호가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화 작업을 하면서 민중미술을 출발점으로 삼았던 시절을 다시 떠올리며 제 작업의 방향성도 찾았구요."

지난 6월 서울 나무아트갤러리에서 열린 목판화전 '무유등등'전을 통해 '판화작가'의 이미지를 각인시킨 그는 앞으로 목판화와 수채화 작업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각사는 로터스갤러리 확장 재개관을 계기로 문화 향기를 더욱 불어넣을 계획이다. 1층 갤러리와 함께 10년 가까이 방치돼 있던 지하 공간은 기존 갤러리보다 훨씬 넓은 100평 규모의 대형 전시장으로 변신했으며 특히 야외의 푸른 대나무숲 등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준다.

정식 개관에 헬싱키 국제 아티스트 프로젝트 전시장으로 사용했으며 내년 가을에는 송필용 전을 개최하고 해외 작가 초청전도 여는 등 다채로운 전시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의 062-383-007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가로 10m에 이르는 대작 '관'의 부분.

## 일상과 사회, 예술적 실천 광주비엔날레 내일 GB토크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광주비엔날레 GB토크가 '일상과 사회, 예술적 실천'을 타이틀로 펼쳐진다.

(재)광주비엔날레는 올해 새롭게 선보인 작가시민협력프로그램 '2018만장워크숍'과 연계한 GB토크를 6일 오후 4시 광주비엔날레 제문헌 1층 로비에서 개최한다. 발제 및 토론에는 김선영 독립큐레이터, 황중환-김현돈-박성완-하루-K 작가가 참여하며 진행은 양초롱 현대미술사가 맡았다.

'2018만장워크숍'을 지난 8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물은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앞 광장에 선보였다. 이번 GB토크에서는 '2018만장워크숍'에 참여한 '정井, 情, Jeong'의 협업팀이 '자유라는 문', '예술의 죄', 'ensemble(함께-하는-집합)', '예술과 소통' 측면에서 예술의 참여 형태와 사회적인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GB토크는 7월 슬라보예 지젝의 '21세기 마르크스를 다시 읽는다'를 비롯해 강우성 서울대 교수 등 국제 전문가들이 참여, 성황리에 열렸다.

문의 062-608-4233.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영화로 기리는 평화·인권 'DJ 정신'

빛가람국제평화영화제 5~7일 나주혁신도시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계승한 영화제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서 처음 열린다.

평화와 인권을 다룬 영화들을 만나는 '2018 빛가람국제평화영화제'가 5~7일 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와 CGV 나주 등에서 열린다.

국제평화영화제조직위와 (사)광주-전남 6월항쟁이 주최하고 김대중평화센터와 나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국내외 11편의 장·단편 영화가 상영된다.

5일 오후 7시 한전 본사 한빛홀에서 열리는 영화제 개막식에서는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 시상식이 함께 열린다.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은 문화예술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바탕으로 문화·예술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해 인류의 평화공존과 인권 신장에 기여한 작품이나 감독에게 수여하고 있다. 이번 영화상에는 다큐멘터리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연출한 추상미 감독이 첫 여성 감독 수상자로 선정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 수상작 '폴란드로 간 아이들'.

됐다. '폴란드로 간 아이들'은 1951년 폴란드로 보내진 1500여 명의 한국전쟁 고아와 이들을 돌본 폴란드 교사들의 실화를 담은 다큐 영화다.

6일에는 특별상영작 '폴란드로 간 아이들'(오후 6시)과 '선녀씨 이야기', '에텔과 어니스트', '나, 다니엘 블레이크', '케어인', '안나, 평양에서 영화를 배우다'가 상영되고 '한국 영화 단편선'이 진행된다. 이어 7일에는 '일 포스티노', '나는 흑인이다'가 상영되고 개막작 '3개의 얼굴들'(오후 3시)과 폐막작 '만델라와 동지를 거부한 국가'(오후 5시 30분)가 잇따라 관객들을 만나며 영화제를 마무리한다. 문의 062-415-8889.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아프리카 리듬 속 현대음악 뿌리를 찾아서

'아냐포' 7일 광산문화회관서 정기공연

아프리카의 전통 가락과 춤을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열린다.

아프리카 타악그룹 아냐포(사진)가 오는 7일 오후 2시, 7시 30분 두 차례 송정동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다섯 번째 정기 공연 '뿌리'(ROOTS)를 연다.

'아냐포'(Anyapo)는 '다함께 연주하자'라는 뜻을 가진 아프리카 말린게 부족말로, 젊은 타악 전공생들이 아프리카 음악과 춤을 활용한 공연을 펼치고자 결성했다. 아냐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문화예술펀딩 프로젝트 '만세만세 만만개'에 참여해 모금을 진행했다. 그 결과 온라인을 통해 200만원 등 총 1000만원 모금에 성공해



재단으로부터 1000만원을 지원받아 공연을 열게 됐다.

이번 공연에서는 아프리카 전통 리듬을 기반으로 한 현대음악의 뿌리를 찾는 시도를 펼친다. 또 동양 음악과 서아프리카 음악의 조화를 통해 동시대 음악의 가치를 담아낼 예정이다. R석 2만5000원, A석 2만원, 온라인 예매(goo.gl/6STbws). 문의 010-4061-8085.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8년 12월호

11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브라보, 백세시대  
인생 2막이 아름답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네오 사피엔스'들  
도전은 즐거워, 행복한 노년의 창조자들  
출판계는 할머니 작가 전성시대

기획-2018 지역 문화계 결산  
굵직한 행사 풍년 미술계  
다채로운 문화 성찬 공연계  
창작의 저변 다진 문학계

노중훈의 꿈의 여행②  
환상이 현실이 되는 겨울도시,  
핀란드 로바니에미

해외문화 현장④  
'황금시대' 네덜란드 회화의 보고  
네덜란드 국립미술관

여행이 만난 이 사람  
투수 코치로 첫시즌 보낸 KIA 타이거즈 서재응

에향 초대석  
'구명가게' 펜화작가  
이미경  
"별거아닌 것들을 지키고 싶어요"

문학이 숨 쉬는 문학관을 찾아서⑧  
영원의 세계를 노래한 시인의 집  
구상문학관

동네책방이 빠지다-책방별곡완

세계인이 사랑하는  
유럽의 색깔 있는  
서점들

정운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저항과 선택②  
안토니오 카를루스 조빙 VS. 케이트너 벨루주  
영혼과 슬픔 달린 남미음악의 상징들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⑧  
해외 진출 한류 배우들  
세계 시장서 맹활약

아트 뉴스 & 리뷰  
2018광주비엔날레 <북한미술>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전

기획-송년여행 떠나볼까?  
해님이, 설경, 빛축제  
세가지 색 송년 여행

새로운 숨 차오르는  
망글 해남  
녹두앙의 고적한 예술형식에 흠뻑  
근심 풀이되는 달마고도 트레킹

화제의 공연  
실내악 앙상블  
'필하모닉스' 광주공연

배국남의 대중문화 X파일⑧  
해외 진출 한류 배우들  
세계 시장서 맹활약

기획-송년여행 떠나볼까?  
해님이, 설경, 빛축제  
세가지 색 송년 여행